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도-전개공, 투자유치 대상지역·인센티브·질의응답·변화된 새만금 투자환경·복합테마파크 유치방향 등 설명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분야 관심 기업들을 초청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투자를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국내·외 호텔·리조트 운영사, 건설사, 개발회사, 회계법인 등 23개사가 참석했다.

전북도는 관광레저용지와 고군산군도 등 투자 제한지역과 인센티브를 설명했으며, 주요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대규모 복합테마파크의 유치 방향을 소개하며,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완성된 새만금 남북·동서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달라진 새만금의 투자환경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분야 관심 기업들을 초청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단지에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고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관광개발분야 투자도 적기라는 설명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이어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최근 공고

한 '초인지' 예비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용지와 계획을 가진 곳은 새만금이 유일하며,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잠재적 후보지에서 이제는 즉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채택되었던 관광개발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 적기공급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장은 "제안단계부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장은 "제안단계부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장은 "제안단계부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장은 "제안단계부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

9개 금융기관서 11월 3일부터 개설 가능... 도민 수급권 보호 강화

전북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9월 12일)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이 11월 3일부터 9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기관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 인보조기기구임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환제 등 5개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해당 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

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선정

군산시수협 비응향위판장, 사업비 60억 확보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유동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공모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군산시수협 비응향위판장이 선정돼 사업비 60억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 포함된 사항으로 2028년까지 노후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해 연구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을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구축하여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이며, 지난 7.31일 대형(60억원) 1개소, 소형(20억원)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공모계획을 발표한다.

군산시수협 비응향위판장은 2010년 9월 개설 당시 연간 1,500여 톤에 불과하던 위판장이 2022년에는 3,800여 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던 홍어, 오징어, 고등어 등이 서해안(어청도 주변)에 어장이 형성되어 어획됨에 따라 저온유통 체계가 가능한 위판장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 군산시수협에서는 서해안 대표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비응향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 하고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모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 군산시수협에서는 서해안 대표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비응향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 하고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모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장수군,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 선정

우석대와 산림레포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배치 방안 연구

장수군이 전북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우석대와 함께 장수군 산림레포츠 전문인력 양성·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나간다.

전북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은 대학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장수군은 지난 8월 우석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장수군 산림레포츠 전문인력 양성·배치 등 방안에 대해 논의 후 8월 말 발표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에서 최

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앞으로 우석대학교와 지속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총 사업비 4억 2천만원의 규모로 '장수군 산림레포츠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철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장수군에서 2019년 산림레포츠기반시설을 조성한 바 있기에, 이번 전북도 RIS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지역 정주여건 등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화재진압 22·구조 4

구급 8명 등 총 34명

전북도소방본부는 6일 신규 소방공무원 34명을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입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22명, 구조 4명, 구급 8명으로 각 소방서의 최일선 현장인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배치돼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안전보호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중앙소방학교에서 19주간 소방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체력과 정신력을 키웠다. 5주간 소방관서 실무수습을 통해 현장 적응·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여 현장 투입에 필



전북도소방본부는 6일 신규 소방공무원 34명 임용식을 연 가운데,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요한 능력을 갖췄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명예와 헌신, 숭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로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

고, 개인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가을철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북도는 추수철·행락철을 맞아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쯤쯤기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로 쯤쯤기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1,796명, 전북 2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 10월에만 발생한 환자 수는 119명으로 도내 전체 환자 수의 42%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증열

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수는 전국 199명 중 34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18%이며, 전북은 발생환자 15명 중 현재 사망자는 없다.

설치류(쥐) 매개 감염병으로는 렘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이 있는데, 렘토스피라증은 주로 태풍 홍수 장마 때 오염된 물을 통해 균에 노출된 후, 9~11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

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40명, 전북 4명으로 집계됐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며, 성별로는 남자, 직업별로는 군인과 농부에서 환자가 집중됐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289명, 전북 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은 농부, 군인 등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은 농부, 군인 등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